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진출 현황과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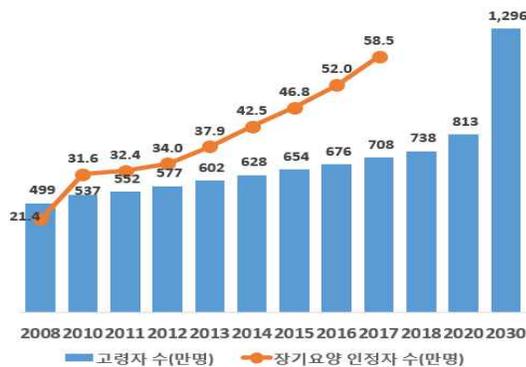
이상우 수석연구원

일본 보험업계는 간병사업이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한 성장사업으로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전망하고 최근 간병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음.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진출은 대형사가 주도 하는 자회사(간병회사) 설립 방식으로 손보HD그룹 등이 최근 M&A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부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음. 우리나라도 간병산업에 보험회사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민간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 간병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현물급부 이외에 다양한 급부방식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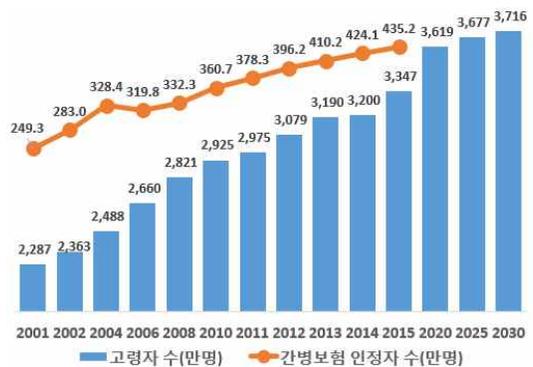
■ 국내 고령자 인구와 노인장기 요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보험회사들이 간병시장에서 M&A나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간병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건강보험시장에서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그림 1〉 한국 고령자 수와 장기요양 인정자 수 추이



자료: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그림 2〉 일본 고령자 수와 간병보험 인정자 수



자료: 內閣府(2018), 高齢社會白書

1)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 일본은 공적보험을 간병보험, 민영보험을 민영간병보험으로 각각 호칭함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하면 <그림 1>과 같이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2030년 1,29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일본은 이미 고령자 수가 2030년 3,71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간병보험 인정자 수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약 435.2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진출 배경은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간병사업에 전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일본의 간병사업은 평균 영업이익율이 8.4%로 전통산업보다 높아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²⁾, 2025년에 고령자 관련 시장규모가 100조 엔, 간병 관련 시장규모가 18.7조 엔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³⁾
 - 일본 보험업계는 전통적 보험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간병사업이 보험회사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4의 핵심적 사업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⁴⁾
 - 보험회사가 운용자산으로 간병시설에 투자하거나 보험상품에 간병서비스를 부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등 보험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사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
- 현재 간병사업에 참여 중인 보험회사는 손보Holdings(이하, '손보HD')와 동경해상HD, 미츠이시미토모 등의 손보사와 아이오이닛세이, 니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소니보험그룹 등의 생보사 등 주로 보험그룹이 진출하고 있음

2) 총무성(2012)은 건설업(4%), 소매업(6.4%), 숙박업(5.9%), 오락업(4.7%), 정보통신업(8.6%) 등으로 영업이익률을 조사함

3)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2015)

4) 損保Holdings 奥村 사장은 생명보험(1차), 손해보험(2차), 해외진출(3차)을 핵심 수익모델이라고 함(東洋經濟 2018. 12. 7)

〈표 1〉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운영현황

(단위: 개)

보험그룹명	간병사업자명	재택형 간병사업(점포 수)			시설·거주형 간병사업(호실 수)				
		방문 간병	주야간 간병 ⁵⁾	재가 간병 지원 ⁶⁾	유료 노인홈 ⁷⁾	고령자 주택 서비스	저부담 노인홈	단체 홈 ⁸⁾	간병 노인 보건 시설 ⁹⁾
손보HD	(주)손보케어	625	61	n.d ³⁾	25,500				
동경해상HD	(주)동경해상베타라이프	40	-	40	501	104	-	-	-
미츠이시미토모	(주)미츠이시미토모케어넷	3	-	3	223	-	-	-	-
아이오이닛세이	(주)후레아이서비스	-	4	-	n.d	-	-	-	-
니혼생명	닛세이성례건강복지재단	2	-	1	760	-	-	-	n.d
메이지야스다생명	(주)선비너스타치가와	-	-	-	137	-	-	-	-
소니보험그룹	(주)Lifecare Design	-	-	-	196	-	-	-	-
	(주)Proud Life	-	-	-	1,324	-	-	-	-

주: 1) 2018년 10월 기준

2) n.d(no date)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숫자 확인이 안됨

자료: 松吉夏之介(2018. 12), 保険会社における介護事業の展開状況等について

- 현재 보험그룹사들은 〈표 1〉과 같이 재택형과 시설·거주형 간병사업에 모두 진출(메이지야스다생명과 소니그룹 제외)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수익성이 높고 고령자 본인이 부담하는 유료노인홈 사업에 진출함
- 대표적으로 손보HD는 간병 입주시설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2015년에는 (주)메시지¹⁰⁾와 (주)와타미간병¹¹⁾ 등을 인수하여 자회사인 (주)손보케어¹²⁾를 2017년 2위(인수 전 7위)로 대형화를 추진하였음
- 동경해상그룹의 경우 유료노인홈과 간병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임대주택에 진출하고, 소니보험그룹의 경우 유료노인홈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은 간병 관련 자회사 또는 외부 간병전문회사를 통하여 보험상품 제공 시 간병관련 서비스를 부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대부분의 부가서비스는 보험상품 가격에 이용료가 포함되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향후 보험계약자의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표 2〉와 같이 간병상담 서비스와 간병시설 등 소개·이용 서비

5) 요양보호사가 데일리서비스 사업소에 고령자를 통원시키거나 일상생활 지원, 생활기능 개선 등을 하루당 제공하는 서비스

6) 간병사업 보조원이 간병인정 신청 대행, 재가간병 프로그램 계획 등을 작성

7) 고령자의 부담으로 입소할 수 있는 고액의 간병요양시설

8) 저부담노인홈과 단체홈의 경우 부양자가 저소득계층에 해당함

9) 고령자의 간병상태가 호전될 경우 자택귀가 준비를 위하여 재활훈련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10) 2015년 매출액 789억 엔으로 시장점유율 2위, 종업원 1만 명 규모

11) 2015년 매출액 354억 엔으로 시장점유율 6위, 종업원 7천 명 규모

12) 2017년 종업원 2만 7천 명 규모

스이며, 이외에도 간병 관련 정보제공·조사 서비스, 심리적 지원 서비스, 고령자 시큐리티 서비스 이용 우대권, 앱 제공, 세미나 참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간병 입주시설 체험숙박과 간병식품 택배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음

〈표 2〉 일본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간병 관련 부가서비스 종류

(단위: 개)

서비스 종류	간병상담 서비스	간병시설 등의 소개·이용 서비스	정보제공·조사 서비스	심리적 지원 서비스	시큐리티 서비스 우대권	세미나 참가 서비스	앱 제공
제공 보험회사 수	17	13	9	8	5	3	5

자료: 松吉 夏之介(2014. 10), 生命保険会社における付帯サービスの現状

■ 일본 정부는 간병분야를 국내외¹³⁾ 유망성장 산업으로 전망하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등에 의한 간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간병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¹⁴⁾

- 간병보험과 관련하여 고령자 본인부담을 증액하거나 보장범위와 한도 조정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간병·치매 예방사업, 간병생활 지원, 환자보호, 간병식사 등에 대한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음
-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간병서비스 제공 고령자 전용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2011년에 개정하는 등 보험회사 등 민영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함
-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 현금지급 대신에 간병서비스 또는 실버타운 입주권 등의 현물급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규제를 개선함
- 민영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2015년에 신설하여 간병서비스가 부가된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

■ 우리나라도 고령자 인구 1천만 명 시대(2025년)를 맞이하여 간병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적 간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향후 해외시장 개척에 대비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대규모 운용자산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리스크 전문기관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간병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회사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간병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상품에 부가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간병보험료 소득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계약자의 간병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상에서 현금급부 대신에 간병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부제공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13) 중국은 고령자 관련 시장규모가 약 360조 엔 규모로 전망됨(日本經濟新聞 2017. 7. 20)

14) 首相官邸(2016. 4. 19), 日本再興戦略 2016